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토론회

전북도, 문화재청·경북도·경남도 공동 개최... 다양한 해석·견해 논의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된 전문가의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전북도는 2일 합천박물관에서 전북도와 문화재청, 경기도, 경남도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와 국립원주문화재연구소가 주관하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현황과 쟁점'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 추진 경과와 현황을 살펴보고, 고분군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견해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가야고분군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올바르게 이해하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각

계의 다양한 노력과 담론을 들어보고, 이에 대한 다각적 검토가 논의가 있었다. 발제 후 집단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 토론회는 먼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추진과 탁월한 보편적 가치(하승철,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추진단)에 이어, ▲기문·다라 명칭의 문제점(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을 주제로 세계유산 등재 추진의 의의와 경과, 가야사 접근 방식 등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이후, 계명대학교 노중국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수지(순천대학교 글로컬한류문화학과 박사과정), 박천수(경북대학교 교수), 백승욱

(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정암(전 관동대학교 겸임교수) 등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가야고분군에 대한 신청서를 전반적으로 심사하는 중에 다양한 견해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등재 추진 논리를 견고하게 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문화재청, 전북·경북·경남 광역자치단체와 국립연구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등과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성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과 공유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읍 국제아트페스티벌 '다시, 평화' 전 개최

회화·조각 등 '평화' 주제 세계 63개국 80여 점 작품 전시

정읍 국제아트페스티벌 '다시, 평화(PEACE AGAIN)' 전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신태인읍 소재)에

서 열린다. 국제아트페스티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정읍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



정읍 국제아트페스티벌 '다시, 평화(PEACE AGAIN)' 전이 지난 1일부터 시작해 오는 25일까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신태인읍 소재)에서 열린다.

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세계의 평화와 일상의 평화를 다시 되찾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예술가들이 바라보는 '평화'의 다양한 모습을 공유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지난 4월 서지말장학회와 거제 해군강테마박물관, 유경미술관이 문화·예술·교육 등 상호간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진행하게 됐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세계 63개국 283명의 예술가 작품 중에서 엄선된 8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각국의 예술가들이 평화라는 주제로 회화와 사진, 조각 등 다양한 장르에서 각자만의 의미와 색깔을 녹여내 표현한 작품들이다.

이번 전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가능하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전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읍시 생활문화센터(063-571-5170)로 문의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상대적으로 문화환경이 취약한 농촌지역에서 이번 국제 전시를 통해 세계 각국의 여러 미술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전시회를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독립영화제 폐막... 감정원 감독 '희수' 대상 수상

제21회 전북독립영화제가 지난 1일 오후 7시 30분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폐막식을 열고 5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사)전북독립영화협회가 주최하고 전북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회 전북독립영화제가 10월 28일 목요일에 개막해 총 44

편(단편 38편, 장편 6편)의 영화를 소개하고 전국에 지역영화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독립영화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대행사 축소 및 '한 칸 띄어가기' 시행 등 방역에 힘쓰며 영화제를 진행했으며, 총 470여명의 관객으로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본심 심사를 통해 영예의 대상인 옹골진상은 은유의 카메라를 통해 근래에 보기 드문 형식의 극영화를 훌륭하게 완성해낸 감정원 감독의 연출적 감각이 돋보이는 영화 '희수' 수상의 영예와 함께 폐막작으로 영화제 피날레를 장식했다.

올해의 다부진상(우수상)은 일상과 노동 속의 예술을 기록하며 삶과 예술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영화 김재봉 감독의 '작은새와 패지씨'가 선정됐다. 올해의 아무진상(우수상)은 한 배우의 하루 여정을 통해 영화로부터 점차 멀어져가는 배우의 애상을 담아낸 김태희 감독의 '걸어도 걸어도'이다. KT&G 후원으로 새롭게 편성된 '상상(우수상)'에는 강민지 감독의 '물건들'이 수상했다.

배우상은 훌륭한 앙상블을 보여준 <오토바이와 햄버거>의 박강섭, 박지현, 박한솔 배우가 배우상을 수상했고, 특별언급상으로는 이주승 감독의 '뿔대'와 김희진 감독 '학경'으로 선정되어 영예를 안았다.

전북독립영화제는 "힘든 시기에도 2021 전북독립영화제에 찾아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좋은 작품들로 함께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



제21회 전북독립영화제 본심 심사를 통해 감정원 감독의 희수가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제49회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 발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운애)는 '제49회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를 발표했다고 2일 밝혔다. 백일장은 '해바라기', '편지', '강물'이란 시제를 통해 풍성한 가을을 만끽하며 사단 간의 따스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산문·윤문부문에서 총 120여 편의 작품 중에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장원에 최은지 등 총 1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운애 센터장은 "제49회 전북여성백일장 수상자들이 문예창작 동아리 '달빛'을 통해 여성문인으로서 지속적인 문화활동을 이어가길 바란다"며 "문화 활동에 역량 있는 도내 여성들

모두가 백일장의 역사를 만들어 왔기에 50주년을 맞는 내년도 전북여성백일장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군산 말랭이마을 레지던스 입주작가 모집

군산시는 원도심에 문화도시 생명력을 불어넣는 군산 말랭이마을 레지던스 입주작가를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예술의 창작활성화를 위해 군산 말랭이마을에 입주할 작가 6명(팀)을 모집한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예술가들이 레지던스

시설에 일정기간 거주해 창작활동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교육 등 지역과 연계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예술창작 활성화는 물론이고 예술인들의 교류 폭도 넓힐 수 있다.

모집대상은 문학, 미술, 음악, 사진, 만화 등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분야 6명(팀)이며, 입주를 희망하는 예술가는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오는 2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접수 하면 된다.

입주작가는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통해서 올해 12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군산 말랭이마을 입주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태권 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 공연

우석대 태권도학과 시범단, 전주·고창·부안서 진행

우석대학교 태권도학과 시범단이 민초들의 삶을 그린 태권 소리극 '태권유랑단 녹두'를 무대에 올린다고 전했다. 이번 공연은 퓨전국악실내악단 '소리'와 고창농악보존회, 하이댄스퍼포먼스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태권도와 국악, 농악의 신명이 더해져 관객과의 교감과 소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에 주안점을 뒀다.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고창문화의전당, 부안예술회관이 공동 제작한 이번 공연은 6일 오후 2시, 6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공연을 시작으로 고창문화의전당 18일 오후 4시, 7시 30분, 부안예술회관 27일 오후 2시, 6시에 펼쳐진다.



이번 공연은 도내 문화회관들이 지역 간 균형 있는 문화발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문화예술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고하는 취지로 시도한 교류사업의 하나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문화회관·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 제작·배급 프로그램'에 선정된 작품이다.

남천현 총장은 "우리 대학교 태권도학과는 수백 차례의 국내 공연을 통해 태권극에 대한 작품성을 인정받아왔으며, 해외 공연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와 함께 태권 한류 붐을 일으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명품학과다"며 "태권도의 성장과 발전은 물론 저변 확대를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이끌어갈 전문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서현석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대표는 "동학

농민혁명이라는 전북의 특화된 소재와 예술단체가 보유한 우수한 역량을 가지고 창작한 새로운 태권 소리극인 '태권유랑단 녹두'는 지역 문화회관들과의 공동사업인 만큼 전라북도 문화예술의 중심축으로서 공공성 역할을 강화하고 공연예술 생태계 복원에 기여하는 데 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공연의 연출을 맡은 오해룡 연출가는 "시공간을 초월한 듯 과거에서 미래까지 극의 빠른 전개에 맞춰 장면의 전환 기술과 특수조명 및 음향, 미디어아트 효과를 덧입혀 판타지적인 요소를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공존의 인간학',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평가서

전주대학교는 최근 한국고전학연구소(소장 변주승)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공존의 인간학'이 2021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는 국내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를 총 3분야(신청자격, 체계평가, 내용평가)로 평가, 학술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공존의 인간학'은 현대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 담론을 생산·공유하는 학문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에서 2019년에 창간했다. 창간 초기부터 공동체로서 인간의 관계성을 재정의하기 위해 문학·역사·철학뿐만 아니라 문화연구, 사회학, 융복합 분야를 포함한 학제 간 연구성과를 수록했으며, '인간학'과 '공동체'라는 학술 주제를 심도있게 다루며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해 왔다.

또한 미래 사회에 예측할 수 없는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베트남 등 해외 연구자들의 다양한 연구성과를 수록한 바 있다. 변주승 소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간학'에 초점을 맞춘 학술지인 '공존의 인간학'이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된 것은 큰 성과"라며, "향후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적 과제를 도출함은 물론 학술적 가치를 확산하는 전문 학술지를 목표로 정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존의 인간학'은 1월과 7월, 연 2회 발간되며 현재 7집 발간(2022년 1월)을 목표로 학문 성과를 모집 중이다. 수록된 논문은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https://www.jjacr.kr/jsk/>)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장은성 기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은혜상사(주)

작업복 단체복

안전화 안전용품

사무용 가구 파티션, 앵글, 선반 제작

판촉물 기념품

명찰, 로고 각종 인쇄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대표전화 **063)227-4610**

NAVER **은혜상사(주)**

팩스번호 **063)227-4619**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03, 1층